



## 이달의 포커스 뉴스

### 베트남 소비자 금융 시장의 주요 신용 기관 현황 및 동향

- 베트남 소비자 금융 시장, 외국 기업의 진출 활발
- 디지털 대출 관심 증대 및 이에 대한 규제가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

2P

### 균형영양식 국내 판매 1위 브랜드 '뉴케어', 베트남에서도 1등 브랜드로 성장하겠습니다. ...by 대상웰라이프 황덕현 대표

15P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재 베트남 한국 에너지 협회 12
☑ <팀코리아협의회체 동정>	KBIZ, 베트남 중소기업협회와 MOU 체결 14
☑ <기업탐방>	대상웰라이프 황덕현 대표 15
☑ <법률> 베트남 행정처분 위험성 검토	전현우 변호사 18
☑ <중재> 중재관련 자주하는 질문 2탄	대한상사중재원 유하영 소장 20
☑ <통관> 베트남 관세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 제안	박민설 관세사 21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빈딘성>	23
☑ <이달의 보고서> 2023 아세안 주요 3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31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32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37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 베트남 소비자금융 시장의 주요 신용기관 현황 및 최신동향

- 베트남 소비자 금융 시장, 외국 기업의 진출 활발
- 디지털 대출 관심 증대 및 이에 대한 규제가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

베트남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비자 대출 규모는 약 2,420조 동(한화 약 132조 원) 규모이다. 이는 베트남 경제 전체 신용 잔고의 약 21%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및 유럽 등 금융 선진국의 경우 소비자 대출 규모가 경제 전체 대출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베트남의 소비자 금융 시장은 아직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베트남 소비자 금융 시장 내 신용 기관의 종류

베트남에서 소비자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종류는 공식 채널 및 비공식 채널로 분류된다. 공식 채널은 '신용 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신용 기관으로서 일반 상업은행 및 금융 회사(Finance Company) 등이 있다. 반면, 비공식 채널은 전당포 또는 개인 간 대출(Peer-to-Peer Lending, 이하 P2P 대출), 비상금 대출, 후불결제(Buy Now Pay Later, BNPL)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등 제도권 바깥에 놓인 사적 금융업자를 일컫는다.

#### 은행과 금융 회사의 차이점

종류	은행	금융 회사
정관 자본금	3조 동	5천억 동
운영기간	법적 제재 없음	최장 50년. 단, 운영 기간을 연장할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연장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절차	- 절차 복잡, 상환 능력 입증 등 조건 필요 - 규모가 큰 대출은 담보 필요	- 절차가 간단하고 빠름 - 대출을 위해 신분증과 가계부가 요구됨 -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음
대출한도	고객의 신용 점수에 따라 상이	일정한 대출 한도가 있는 소액 대출을 제공
금리	비교적 낮고 안정적	상업 은행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금리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해외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비자 금융 회사

베트남의 금융 회사는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출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베트남 소비자 금융 시장에는 49개의 은행 외에도 총 16개의 금융 회사가 베트남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출해 있다. 이 중 6개사는 외국계 기업이며 우리나라 기업은 롯데 파이낸스, 미래에셋 파이낸스, 신한 파이낸스 등 3개사가 있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베트남 정부의 불법 대출 규제 움직임, 시장의 높은 잠재력 및 디지털 전환 노력 등에 힘입어 베트남 소비자 금융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 각 신용 기관의 디지털 대출에 대한 관심 증가

P2P 대출 및 BNPL 등 소비자 금융 시장에서의 혁신은 핀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2016년부터 P2P 대출 모델과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예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약 100개의 P2P 대출 기업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스타트업이다. 물론 아직 이들을 관리 및 규제하는 규정이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기업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베트남 중앙은행은 소비자에게 P2P 대출 이용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이와 관련된 현지 핀테크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장 내 일시적인 혼선이 있을 뿐, 시장의 크기는 점차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핀테크 기업뿐 만 아니라, 은행 및 금융회사도 디지털 대출에 있어 적극적이다. 우선, 상업 은행들의 경우 디지털 대출의 잠재성을 보고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창구에서 서류 제출을 통해 진행되는 기존 대면 방식보다 더 편리한 디지털 대출을 시작하고 있다. 베트남 금융 회사들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 디지털 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이러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 체계의 법적 공백과 투명성 문제로 인해 베트남의 신용 기관들은 그동안 디지털 대출 분야 영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업체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하고, 일부 고객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대출자와 차입자 양쪽 모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었지만, 2023년 9월 1일부터는 시행규칙 06/2023/TT-NHNN에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어 디지털 대출 활동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된 이 시행규칙은 신용 기관의 고객에 대한 디지털 대출 관련 규제를 명시하였다. 하지만 상업 은행 및 금융회사가 아닌 제도권 밖 대출은 이 시행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시사점

베트남 소비자 대다수는 전자지갑 사용, QR코드 스캔 결제, 모바일 banking 계좌 이체를 통한 결제 등 디지털 banking에 이미 친숙하다. 이에 디지털 대출도 규제책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은 다양한 디지털 대출 상품에 대해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아직 초기 단계 수준인 베트남 소비자 금융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기업도 혁신적인 서비스나 기술을 통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베트남 전동자전거(EAPC) 시장 동향

- 중국산이 99% 이상... 베트남 국내기업은 빈패스트(VinFast)가 유일
- 베트남 소비자 구매력을 고려한 보급형 EAPC 출시가 관건

### 시장 동향

전동자전거(EAPC)는 최근 몇 년 동안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 중 하나이다. 베트남 정부가 2050년 넷제로를 선언한 이후 각종 환경 보호 법안을 도입하고 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내연기관 대신 전동 엔진을 보조 장치로 활용하는 EAPC는 오토바이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시중에 출시된 제품은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충전 편의성을 위해 탈착식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으며 가벼우면서도 오래 지속되며 안전한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배터리의 경량성은 EAPC 전체 중량 감소에 도움이 되며, 이는 오토바이에서 EAPC로 전환하려는 소비자에게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EAPC는 600~1,000달러 수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 다소 비싼 편이다. 베트남에서 EAPC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EAPC는 유일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기존 차량 이외 추가로 보유하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 경쟁동향

베트남 EAPC 시장은 대부분 중국산이 점유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의 경우 빈패스트(VinFast)가 EAPC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베트남 기업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다. 빈패스트는 베트남 최대기업인 빈그룹(VinGroup)의 자회사로, 전기자동차와 전기 오토바이를 출시한 이후 EAPC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연말 정식 판매에 들어가기 전 7월 21일부터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냐짱(Nha Trang)에서 빈패스트 EAPC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물론 각 기업에서 친환경 운송 수단,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바로 오토바이 수 감축이다. 베트남에서 운행 중인 오토바이 대부분이 내연기관 오토바이로,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0)”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토바이에 대한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 바로 EAPC이다. 베트남 교통부(MT)에 따르면 2022년 연말까지 등록된 오토바이 숫자는 약 6,500만 대 이상인데, 향후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를 EAPC가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 맞추어 우리 기업도 베트남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고려한 보급형 EAPC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높인 후 상품 다양화를 시도한다면 베트남 EAPC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베트남 카메라 시장 동향

- 스마트폰 카메라의 향상으로 개인용 카메라 수요는 감소 추세
- 보안감시인프라, 스마트 홈 카메라 등에서 새로운 기회가 보이는 베트남 카메라 시장

### 시장 동향

글로벌 시장 조사기업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09~2022년 베트남의 카메라 제품 판매 평균 성장률은 약 -4%로 조사되었다. 베트남의 카메라 제품 판매는 2009~2011년까지 연평균 1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후 2012년부터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베트남의 카메라 판매수는 전년대비 9% 감소한 약 172,200대를 기록했다. 이후 2028년까지 6%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2028년에는 약 119,000대까지 판매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인프라 확충이 카메라 수요 견인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30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스마트시티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의 국가 스마트시티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Smart city Handbook in Vietnam’에 각 항목별 31개의 대표 프로젝트 리스트를 기재했는데, 이 중 ‘스마트 안전 및 보안’과 ‘스마트 교통 솔루션’ 부문에서 카메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스마트 교통 솔루션의 일환으로 2021년 베트남公安부가 제안한 ‘교통카메라 설치 및 운영, 보안, 교통단속 및 행정 위반 처리 사업’을 승인했다. 2021년 기준 베트남에는 12개 이상의 고속도로와 약 130개의 국도가 있지만 설치된 교통카메라는 약 200여 대로 미미한 수준이다. 베트남公安부는 주요 도로에 교통카메라를 설치해 차량 단속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제안했으며, 2025년까지 약 9,36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다.

### 시사점

베트남에서는 개인용 카메라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는 카메라 시장이 완전히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인프라의 개선과 스마트 홈 카메라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카메라의 다양한 용도와 적용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베트남에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기업들은 관련 산업의 동향을 살피고 어떤 부분에서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가의 중국산 제품, 고기술의 글로벌 기업 제품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베트남 시장을 공략해볼 수 있는가에 대한 숙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베트남 정유시설 정비, 한국 석유제품 업계에 기회

- 베트남 주요 정유시설 2곳(응이선정유, 응정유소) 정기 점검('23년 8~10월)
- 점검 기간 중 생산 중단 따른 대체 석유제품 수입 수요 증가 예상

베트남에는 총 2개의 정유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정유시설들은 베트남 전체 석유제품 공급의 약 65~70%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2개의 정유시설이 점검 및 점검 예정으로 베트남 내 석유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베트남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항공편 증가, 베트남 내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제트유(항공유), 휘발유 등의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석유제품 공급 차질 및 수요 증가로 한국 석유제품의 베트남 수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 정유시설 대정비작업(Turnaround, TA)

대정비작업(Turnaround, TA)은 정유시설에서 진행되는 정기보수를 의미하는 말로 통상적으로 정상 가동 시 진단이나 보수가 어려운 영역에 대해 기한을 정해 일괄 점검하고 정유시설의 잠재적 위험 요소 등을 진단하고 조치하는 작업이다. 지난 8월 25일 베트남의 최대 정유시설인 응이선(Nghi Son) 정유시설이 55일간 대정비작업(Turnaround)에 들어갔다. 또한, 베트남의 또 다른 정유시설인 응(Dung Quat) 정유시설 또한 지난 6월 대정비작업이 예정돼 있었지만 현재 연기된 상태로 응이선(Nghi Son) 정유시설의 정비가 끝난 이후 대정비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개의 정유시설의 대정비작업이 끝나고 안정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베트남의 석유제품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베트남은 석유제품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점

정유시설의 대정비작업(Turnaround, TA)는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2011년 가동한 응(Dung Quat) 정유시설의 경우도 이전 4번의 대정비작업을 약 3년 주기로 실시한 이력이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 정유시설의 대정비작업이 진행 시 우리 기업은 발맞춰 베트남으로의 석유제품 수출을 공략해볼 수 있겠다. 또한 대정비작업 시기에는 단순히 석유제품의 공백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외국의 선진 정유 기술, 정비 기술을 요하는 때이기도하다. 베트남은 대정비작업이 실시될 때 정유시설의 각 부분의 정비, 점검을 입찰하고 있어 우리 선진 기술 기업들 또한 해당 베트남 정유시설의 대정비작업에 입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 베트남 대체 감미료 시장 현황 및 전망

- 건강을 고려한 소비를 위해 대체 감미료 주목 시작
- 세계 최대 규모 감미료 시장 진출 기회...안전성, 관세 부과 등 제약 공존

베트남의 20~79세 인구 당뇨 유병률 역시 2011년 3.2%에서 2021년 6.1%까지 증가했다. 또한, 국제보건기구(또한 WHO)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8년까지 베트남의 과체중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이후에는 베트남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과체중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과체중 및 비만 인구가 적은 축에 속했던 베트남에서도 비만과 당뇨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건강한 식단과 영양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설탕 섭취량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일반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감미료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 식품산업 및 제약산업의 대체 감미료 제품 현황

최근 식품산업 및 제약산업은 설탕 함량을 줄이고 대체 감미료를 함유한 제품을 다수 출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일반 설탕이 함유된 가당 제품보다 열량이 적은 대체 감미료 함유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품은 보통 제품명에 “다이어트(Diet)”, “라이트(Lite)”, “제로(Zero)”, “저칼로리(Low-calorie)”라는 문구를 포함하며, 다이어트 탄산음료, 무가당 간식류, 시럽 제형 의약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품군은 베트남에서도 약 20년 전부터 출시되어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브랜드 마케팅에 힘입어 대체 감미료 제품은 더욱 대중화되고 있다. 한편, 올해 검토되고 있는 베트남 재무부(MOF)의 특별소비세법 개정 시도는 향후 대체 감미료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재무부는 WHO의 권고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청량음료를 포함한 가당 음료를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제안이 승인되면 일반 가당 음료에 대한 수요를 대체 감미료 음료가 일부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베트남에서 유명한 커피는 연유와 얼음이 들어간 커피인 카페 쓰어다, 박씨우 등이다. 이처럼 베트남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때조차 단 맛을 즐기며, 이러한 특징은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미료 매출이 매년 2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해당 통계에서 매년 전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4위는 베트남보다 인구가 많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베트남의 감미료 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대규모 시장에서 대체 감미료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도 베트남의 대체 감미료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베트남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대체 감미료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 건설기계(굴삭기) 시장동향

- 오늘도 내일도 베트남은 공사중...향후 10년간 성장률 18% 시장
- 적합한 현지 파트너 발굴을 통한 진출 방안 필요

### 시장동향 및 전망

베트남 건설시장은 최근 몇 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보여주며 성장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건설 산업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장 많이 유치한 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베트남 건설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며 2022년 베트남 국내 총생산(GDP) 중 6%의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건설기계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건설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성장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고급 건설기계 제조 역량 부족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CRI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인프라 건설 가속화로 베트남 건설기계 시장 규모는 2032년 약 94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1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 동향

베트남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건설기계 수입액은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약 3배(193%) 증가한 반면, 일본 및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증가는 각각 33% 및 6% 수준에 그쳤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일본 및 한국 기업의 기계·장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베트남 건설 업계에서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건설 기계를 찾는 기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일본의 코마츠(Komatsu, 일본)는 베트남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굴삭기 브랜드로, 주로 일본과 중국 시장에서 수입된다. 일본 시장에서 수입되는 코마츠 굴삭기는 대당 평균 가격이 42,000달러 이상으로 높은 모델이다. 이에 반해, 중국 시장에서 수입되는 코마츠 굴삭기는 대당 평균 가격이 약 8,000달러인 모델이 주를 이룬다.

### 시사점

건설기계 유통과 관련해서는 베트남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유통업체를 통해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두가지 방법이다. 베트남에는 이미 무역 회사(자회사)를 설립하여 모회사의 기계를 수입 및 유통하는 회사들이 있다. 이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거나 부품 관련 적절한 현지 공급업체를 찾을 수 없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모회사 산하에 현지 팀을 고용하는 것도 브랜딩 및 딜러 네트워크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투자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시장 테스트를 원하는 일부 해외 기업은 기계 유통업체 및 딜러와 같은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공인 유통업체 역할을 하는 현지 기업은 시장 내 경험이 풍부한 딜러 및 사용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신규 진출 기업이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적은 노력으로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비즈니스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 어두운 세계 경제 속 환한 빛 ... 경제위원회 발표**

베트남은 올해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지만, 최근 주요 경제지표들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내년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음. 8월까지 베트남의 거시경제는 안정성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은 3.1%에 그쳤으며, 공공, 외채, 정부 부채 등 다른 경제지표도 통제범위 내에 머물렀음. 베트남은 지난해 아세안 회원국 중 유일하게 무디스에 의해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됨. GDP 성장률 역시 2분기에 4.14%로 개선되었으며, 상반기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베트남의 신설법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소매 및 서비스 매출도 증가하고 있음. 베트남 경제는 기본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됨.

[Vnexpress, 9. 17]

▶ **베트남 국영 항공사 베트남항공,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Boeing)과 항공기 구매 양해각서 체결**

베트남 국영 항공사 베트남항공이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과 항공기 구매 양해각서(MOU) 체결했음. 보잉 항공기 747 MAX 50대, 총 100억 달러 규모로 2027~2030년에 걸쳐 총 50대 순차적으로 인도예정임. 조 바이든(Joseph R. Biden) 미국 대통령 국빈 방문 성과임. 베트남항공은 보잉, 미국 정부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의 재정 지원 기대한다고 밝혔음.

[Tuoi tre, 9. 12]

▶ **한국-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한국-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2023년 9월 10일부터 발효됨.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임. 2018년부터 교역환경 변화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 반영을 위해 협정개정 추진함. 이는 개정의정서 발효로,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됨. 더불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 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 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을 신설함. 한국 기업에 대한 통관 혜택 확대로 수출 경쟁력 제고가 예상됨.

[Vietnamplus, 9. 11]

▶ **베트남, 2025년까지 전자상거래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50% 차지할 것**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전자상거래 결제시 전자결제에서 무현금 결제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함. 이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발전에 관한 국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임. 베트남 산업통상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청(iDEA) 산하 정보디지털기술센터(CID)는 전자상거래 이용시 비현금 결제를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전자상거래결제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현금 결제를 위한 시스템 및 인프라를 개발할 예정임. 또한, 비현금 결제시 소비자 및 판매자의 보호를 위한 상업중재 도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함.

[Vietnamplus, 9. 10]



▶ **2023년 하반기 베트남 섬유업계 회복 조짐**

올해 상반기에는 섬유의 주요 원자재 중 하나의 면화의 가격이 2022년 상반기 대비 크게 하락했으며, 이에 더하여 중국 시장의 수요 또한 반등해 베트남 섬유업계의 실적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음. VNDIRECT Research에 따르면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수출이 2023년 5월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섬유 제품 수요 회복의 조기 신호라고 분석함. 또한, 2023년 4분기에는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23년 3분기부터 섬유기업의 수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함.

[Vietnamplus, 9.6]

▶ **2023년 베트남 금값, 신기록 행진**

지난 8일, 베트남 SJC(Saigon Jewelry Company)의 금 값이 0.36% 급등한 6,890만 동(2,858.92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함. SJC 금반지는 0.26% 오른 1땀(tael)\*당 5,720만 동에 판매됨. \*1땀은 37.5그램 또는 1.2온스임. 현물 금(Spot Gold)는 온스당 1,922.87달러로 0.2% 상승했지만, 주간 0.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금 선물(gold futures) 또한 0.2% 오른 1,946.90 달러를 기록함.

[Vnexpress, 9. 8]

▶ **베트남, 2023년 1~8월 신규등록기업 103,658개, 전년대비 2.3% 증가**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23년 1~8월까지 103,658개의 신규기업이 설립되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기록을 보임. 8월에만 약 14,000개 이상의 기업이 새로 설립되어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했음. 하지만 복귀 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 전월 대비 10.9% 감소함. 이 중 교육 부문은 신규 기업 수가 35%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의료 18.9%, 교통, 서비스, 관광, 기계 및 장비 임대, 기타 지원 서비스가 16.3%로 그 뒤를 이었음. 그러나 새로 신규 등록 기업의 총 등록 자본은 969조 6,100억 동(약 402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14.7% 감소했음.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기업의 경영 및 신규 기업 등록 장려를 위해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 사업 및 생산 활동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함.

[Vnexpress, 9. 2]

▶ **베트남, 반도체 글로벌 기업의 생산 허브로 부상**

미국의 컨설팅사인 베인앤컴퍼니(Bain&Company)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들이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중 하나라고 전함. 베트남에는 약 40여개의 반도체 기업이 있으며, 이 중 38개가 FDI기업임. 미국의 Amkor Technology와 Intel은 베트남에 이미 반도체 공장을 설립했으며, 미국의 재무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베트남의 반도체 생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또한 로이터 통신은 9월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방문에서도 반도체가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 예정이라고 전함.

[Vnexpress, 9. 2]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Thai Nguyen Industrial and Medical Waste Treatment Plant

Dai Dong Waste Treatment Zone Phase II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e.kim@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Thai Nguyen Industrial and Medical Waste Treatment Plant

발주처	0 기관명 : T&T Group JSC
프로젝트	0 현장위치 : Pho Yen City, Thai Nguyen Province 0 규모 : 약 170 백만 달러 (잠정) 0 프로젝트 재원 : 투자자 펀딩 0 프로젝트 단계 : 기술심사 0 세부내용 - 프로젝트 기간 : 2023~2025 - 프로젝트 재원 : 자체조달

Dai Dong Waste Treatment Zone Phase II

발주처	0 기관명 : Tin Thanh Group Joint Stock Company
프로젝트	0 현장위치 : Dai Dong Commune, Van Lam Dist., Hung Yen Province 0 규모 : 약 90백만 달러 (잠정) 0 프로젝트 재원 : 투자자 펀딩 0 프로젝트 단계 : 기술심사 0 세부내용 - 프로젝트 규모 * 일반폐기물 600톤/1일 * 산업 및 의료 폐기물 800톤/1일



## 재 베트남 한국 에너지 협회

### ■ KEAV 소개

KEAV(재 베트남 한국 에너지 협회)는 2020년 12월 베트남에 진출한 에너지산업 관련 한국기업들을 주축으로 정식 발족되었으며 KEAV(KOREA ENERGY ASSOCIATION IN VIETNAM)라는 정식 명칭으로 베트남 내 에너지 관련 사업을 개발/운영하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대한민국과 베트남 정부기관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 그리고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대 멤버로는 KEPCO 응이손법인 최정호이사님을 협회장님으로 추대하고, 주베 대한민국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하노이 상무관님과 호치민 상무관님을 고문으로 위촉하였으며 회원사로는 KEPCO 및 발전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한화에너지, LS일렉트릭, 수산인더스트리 등의 사기업 총 33개 회원사로 발족하였습니다. KEAV협회는 에너지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력 기업 뿐 아니라, 건설사, 파이낸싱,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에너지산업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화에너지 신병철 협회장님을 필두로 하노이지부와 호치민지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노이지부는 하노이대사관 민문기 상무관님, LS일렉트릭 박수혁 법인장님, 호치민지부는 호치민 대사관 권기관 상무관님, 수산인더스트리 권오준 법인장님이 각각 고문직과 부협회장직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회원사는 정회원사(32개사), 부회원사(15개사), 자문사(6개사), 옵저버사(7개사)로 구성되어 있고 대사관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사는 한국의 에너지 관련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및 기관, 부회원사는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건설, 파이낸싱분야 등의 기업 및 기관, 자문사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옵저버사는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정부 감독 및 집행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KEAV와 베트남 에너지 산업

베트남은 그간 한국기업의 촉망받는 투자처로 한국업체의 높은 위상에 비해, 에너지 분야는 불과 7~8년 전만해도 주로 일본, 미국, 유럽업체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기업은 베트남 에너지사업의 major player로 우뚝섰고, 시간이 갈수록 그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국 각지에 에너지 협회 회원사가 운영하고 건설한 발전소를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현재 약 8GW의 운영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전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2030년까지 약 150GW, 2050년까지 설비용량 확대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은 동남아는 물론 세계 유수한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활발한 전력설비 증설을 계획한 국가중의 하나로, 한국에너지업체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한국에너지업체들은 신재생, LNG 발전소 분야, 탄소중립 관련 사업 등에서 좀 더 많은 사업성과와 활약을 통해, 양국의 에너지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 **최근 활동현황**

KEAV는 현재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주요 에너지 관련 기업과 지원기관이 합심하여 베트남 내 에너지 사업협력을 도모하고 베트남 정부 에너지기관과 정책공유, 기술교류회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 및 기관간의 주요활동으로는 KEAV 자체적으로 정기 세미나 및 현지 발전소 방문, KORT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주관하는 Meet Korea 행사에도 협회 차원에서 참여하여 회원사간의 베트남 에너지산업 현황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회원사간의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MOIT(산업무역부) 및 주요 에너지기업 주요인사들을 KEAV 행사에 초청하여 한국에너지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베트남 정부기관과의 정기적인 교류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 **향후계획**

에너지 사업 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발, 자금조달, 건설, 운영, 법률, 회계 등의 전분야에서 Team Korea로서 한국업체간 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보공유, 협력기회 강화를 위한 Communication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에너지 기업들의 주요 진출분야인 신재생, LNG 발전분야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베트남 내 여러 제도적, 법률적 이슈 등에 대해 한국에너지 업체들의 목소리를 베트남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좀 더 활발한 사업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끝>



## KBIZ, 베트남 중소기업협회와 MOU 체결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22일 오후 2시(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기획투자부 청사에서 베트남 중소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베트남중소기업협회는 지난 2005년 설립된 중소기업정책 개발 및 대정부 건의를 지원하는 베트남 중소기업 대표 단체다. 6만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중소기업계 교류 확대 논의를 계기로 체결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바이어 발굴 등 판로 개척 지원 ▲정보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협약식에는 트란 두이 동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도 참석해 양국 중소기업계 현안을 청취했다. 중기중앙회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노동, 금융 지원 확대 등 베트남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교역국이자 중소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이라며 “양 기관은 서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베트남 팀코리아협약체 활동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영양식 국내 판매 1위 브랜드 '뉴케어', 베트남에서도 1등 브랜드로 성장하겠습니다.

대상웰라이프 황덕현 대표

### 대상웰라이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상웰라이프는 한국에서 건강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기업으로, 국내에선 TOP3에 속합니다. 대상그룹이 베트남에 진출한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베트남 사업의 경우 식품 조미료, 소재 위주로 운영되다가 경제 성장, 생활수준 향상 등 여러 여건들에 의해 베트남 건강식품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저희도 건강식품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상그룹 베트남 법인장으로 처음 베트남에 오게 되었고 퇴직 후 식품 유통 전문기업인 케이마켓 대표를 거쳐 현재는 대상웰라이프의 베트남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주요 제품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군이 매우 다양합니다. 중장년층이 건강을 위해 먹는 건강식품이 있고, 요즘 대세인 젊은 세대들이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단백질 보충식품의 경우, 건강이 안 좋아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베트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층 건강제품 수요도 많지만, 젊은 인구를 바탕으로 단백질 보충식품도 인기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용 건강식품이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똑같은 소망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키도 크고, 똑똑하게 자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좀더 건강하게, 똑똑하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그와 연관된 맞춘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수입,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과거 10년간 신장을 비교해본 결과, 놀랍게도 10년간 평균 신장이 1cm도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도 왜 우리 베트남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 키가 크지 않은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모들 역시 이부분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에서 저희 제품 중 뉴케어 마이키즈 라는 어린이 성장음료를 판매를 시작했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조금씩 유통이 되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했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 기업의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고, 한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확인하는데 대상웰라이프 제품들이 이 요소들을 충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은 같은 동양으로 식생활이 비슷하고,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비슷한 것이 베트남 소비자들의 한국제품 구매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 대상웰라이프의 특징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웰라이프는 만 30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소비자들의 대상웰라이프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건강식품 중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품목 중 하나가 콜로렐라인데요, 저희 대상웰라이프 콜로렐라 제품이 한국 일류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서도 환자식으로 알려져 있는 영양공급제품인 뉴케어는 1994년에 런칭을 했고, 한국에서 시장점유율이 95%입니다. 두번째로 저희 대상웰라이프는 자체 생산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GMP 인증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로 갖춰야 할 부분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은 병원이나 약국 등에도 활발히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충분한 임상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향후 베트남 건강식품시장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한 시장이 맘앤키즈 시장입니다. 한국은 워낙 출산율이 낮다 보니 맘앤키즈 시장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맘앤키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건강식품 뿐 만 아니라 넓게 생각하면 식품, 가정용품 시장을 봤을 때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 시장만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전에 건강식품은 알약이나 캡슐 등 약에 가까웠지만 최근 트렌드는 '건강한 식품'입니다. 식품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서 실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이 접목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찾는 건강기능식품의 수준도 높아지고, 요구하는 시대가 베트남에도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베트남 사업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시지요?

가장 큰 장점은 베트남 시장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죠. 하지만 그 매력적인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선 어떻게 단계별로 추진을 할 것 인가에 대한 문제가 저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의 걱정이지요. 그 이유는 베트남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발전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10년, 20년을 건너 띄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법규, 규정, 체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완벽하지 않다 보니 그 가운데서 시행착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과연 유통 회사들이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장벽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법적으로는 한국의 수삼은 베트남에 수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쉽게 한국산 수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베트남 사람들이 우황청심환을 매우 좋아하는데 우황청심환 성분 중 일부 성분은 베트남에 수입을 할 수 없는 성분이지요. 정식수입이 안되면 유통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베트남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관점에서 제가 느끼는 베트남 사업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수입 허가 라이선스와 제품등록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데, 허가 받지 않는 제품들이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언가 베트남 시장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차원에서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열이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미허가 제품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의 대한 개선





이 많이 필요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장벽들의 해소를 위해선 정부차원의 규제와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 미허가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조치 성격의 제도보다 미허가제품 유통 단속 등 사후조치에 관한 제도만 강화되거나, 정식 수입 절차만 더욱 까다로워지는 등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와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 향후 계획하고 계신 신사업이 있으신가요?

현재 베트남에는 젊은 인구가 많지만, 향후 십년간에는 베트남에도 노령화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한국, 일본처럼 베트남도 당뇨, 혈압 등 성인병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저희 대상 웰라이프 대표 제품인 뉴케어 제품을 병원에 납품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노이 국립 암병원에 위암 수술 환자들에게 뉴케어 액티브라는 단백질 고함유 제품이 환자식으로 납품되고 있고, 베트남 108병원 포함 10여개 병원에는 뉴케어 당뇨식이 환자들에게 공급되고 병원 내 약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허가를 받고 수술 후 직접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관주입식용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 중에 납품을 성공한 건 대상웰라이프가 최초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미국, 유럽제품들이 주로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 유럽제품들은 영양성분이 서양인들에게 맞춰져 있고 섭취량이나 맛도 서양 입맛에 맞춰져 있다 보니 베트남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제품은 베트남인들에게 더욱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원 의사, 영양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국립, 대형병원 위주의 납품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국 건강기능 식품 기업에게 혹은 조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십시오.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중 특정 계층이나 나이대를 겨냥해서 나온 제품들이 많은데요, 상품 특성과 베트남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잘 매칭시켜서 접근해야 합니다. 더불어 베트남 시장은 아직 기회가 많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다른 나라 못지않게 사업하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법적 규제와 비즈니스 관습적인 측면인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끝>



## 베트남 행정처분 위험성 검토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 1. 들어가며

베트남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관공서의 고압적인 태도, 불친절, 비합리적인 요구 등으로부터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경험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여러 관청에서 사소한 이유들로 불리한 처분을 경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조항을 살펴보면 불과 행정 과태료 5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다면 차라리 그냥 과태료를 내고 말지 라는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그런데 주변 베트남 기업들을 살펴보면 관청과 최대한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적은 금액의 행정 과태료라 하더라도 최대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로 담당 공무원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 일단은 베트남 관습인가 하는 생각에 관공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다 가도 때로는 다시 발생하는 얼토당토 않은 요구사항에 언제까지 맞춰주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베트남 관공서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베트남 기업들의 태도는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단순 정부 기관과는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인지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일반적인 관행인 것인지, 이번 칼럼에서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베트남 행정 처벌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검토하며 베트남 관공서가 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 2. 투자등록증 회수의 법적 효과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법률 리스크 중 하나는 투자등록증의 회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투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이러한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를 이행해야 합니다. 투자등록증은 투자금액, 위치, 규모, 생산목적 또는 서비스, 업종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이러한 투자등록증의 범위 안에서 투자법을 준수하여 투자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등록증을 회수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투자등록증은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보유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단에 토지를 50년 장기 임차하여 공장건물을 짓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기업이라면 투자등록증을 회수당하는 경우 이러한 모든 자산에 대한 소유 근거를 잃게 됩니다. 특히 공단과의 계약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률위반으로 인한 투자등록증 회수는 토지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계약 해제의 트리거 조항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상 베트남에 투자한 모든 투자금을 날릴 수 있는 위험한 법적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그 처분가능성에 비해 그 처분효과가 강력하기에 베트남 관공서 또한 투자등록증 회수에 대해서는 실제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까다로운 규정, 절차를 통해 그 처분을 남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베트남 법률만을 살펴본다면 베트남 투자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이 가지고 있는 처벌 조항이 피처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처분권자에게 매우 넓은 범위의 재량권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 3. 투자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들

투자법 제47조 2항 및 3항은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투자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규정은 제47조 2항 E목의 **“투자자가 투자승인, 투자등록증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투자등록증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입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어떠한 위반사유를 정하고 있는지,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계속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고 있는지 그 정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법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시행령 122/2021/ND-CP를 살펴보면 투자법 위반에 대한 다양한 행정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투자활동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제15조에서 2천만동에서 3천만동의 행정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혹은 투자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3천만동에서 5천만동의 행정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스케줄은 투자등록증에 기재되는 사항이고, 실무적으로 건설 등 일정준수를 관할 관청에서 매우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기간 미준수에 대한 페널티는 불과 한화 15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크게 무거운 처분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행정처분은 단순 몇 백만원의 금전적 손해가 아닌 행정처분 이력 자체에 매우 강력한 법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로 행정 과태료 외에 법률은 이러한 위반사유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위반사유 시정에 대한 기간이 법률상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투자자가 2023년 1월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약정하고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여러가지 사유로 건설공사에 시일이 더 소요되어 현재까지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개시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프로젝트 일정 위반은 투자법상 행정처분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정처분은 일차적으로 행정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자는 해당 투자일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가 그러한 보완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까요? 관할 관청이 위 위반 시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인정할 것일까요? 투자법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만일 행정 과태료 부과처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는 1주일 이내에 시정할 수 있을만한 것이 아닙니다. 1주일이 지나도록 이러한 지연이 계속된다면 이는 위 투자법 제47조에서 이야기하는 투자자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간 미준수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는 처분을 1주일에 한번씩 수차례 지속한다면 어떨까요? 객관적 사실로만 판단한다면 해당 투자자는 관할 관청의 수차례 지속적인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즉, 투자법에 따라 투자등록증을 회수하여도 적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법 외에도 베트남 법률은 이와 유사하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처분권자의 재량권을 크게 인정하고 피처분자가 예상할 수 있는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매우 낮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법체계가 보완해야 할 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 중재 관련 자주하는 질문 2란

대한상사중재원 하노이사무소 유하영 소장

안녕하세요. 대한상사중재원 하노이사무소 유하영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중재원에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중재라는 제도가 아직 어렵고 생소하신 분들에게 유익한 글이 되길 바랍니다.

### Q1. 중재합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하여야만 합니까?

√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공문, 이메일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들의 감정이 좋지 않아 원만한 대화가 어렵거나, 불신감이 증대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에 중재조항의 형태로 중재합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 Q2. 중재는 소송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까?

√ 아닙니다. 중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다시 소송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 Q3. 중재신청을 할 때에 중재비용은 누가 예납합니까?

√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신청을 하는 신청인이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반문하여 예납합니다.

### Q4. 중재비용은 얼마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중재비용이 결정되며 중재비용은 관리요금 및 중재인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인은 중재신청 시 중재신청서와 함께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중재규칙 내 별표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5. 중재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까?

√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내용이 복잡하거나 법리적 다툼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 3.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중재,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



## 베트남 관세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 제안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2023년 5월 관세총국의 재무부에 대한 관세법 시행령 08/2015/ND-CP의 제 35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제안 공문 이후, 2023년 8월 재무부의 시행령 08/2015/ND-CP의 수정에 대한 초안이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기존 관세총국 공문에서, 관세총국은 아래 3가지의 내국 수출입에 대해 규정하는 제 35조 제 1항의 전체 폐지를 제안하였으며, 3가지 경우 중 C항은 완전히 폐지하되, A항과 B항은 관세법 시행 규칙의 상응 조항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 a) 베트남에서 가공 의뢰된 물품으로 가공을 의뢰한 외국 단체나 개인이 베트남에서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판매 되는 것
- b) 국내 기업과 수출가공기업 또는 비 관세 구역 내 기업 간에 거래되는 물품
- c)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가 없는 외국 상인이나 개인 간에 거래 되는 물품으로 외국 상인이 해당 물품을 베트남 내 다른 기업에 배송 및 수령하도록 지정한 것.

이번 재무부의 초안에서는 기존 공문과 내용의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어, 내국수출입에 관한 제 35조의 완전 폐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내국 수출입 유형중 제 35조 제 1항 a와 b의 절차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행할 것 및 c의 폐지에 있어 유예 기간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 참고할 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제35조 1항의 전체 삭제 및 대안 절차의 제시

- 제 35조 1항을 전체 삭제하되, 제 1항 a의 경우와 b의 경우는 시행 규칙(38/2015/TT-BTC)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추후 해당 시행 규칙의 수정 및 보완 시행규칙 수립 시 구체적으로 제안될 것이다.
- C항 경우의 내국 수출입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아래의 경우 중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다.
  - ① 국내 수급 물품의 거래인 경우, 국내 기업 간의 거래와 같이 부가세 및 관련 세금 납부
  - ② 수출제조 형태에 따라 수입세 면세를 받고 수입된 원재료로 생산된 물품이 해외 상인과의 거래로서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가 없는 해외 상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내 다른 기업에게 전달 되는 경우, 수출제조 형태로 수입을 한 기업은 보세 창고 혹은 별도 세관 구역으로 물품 수출 절차를 거쳐 입고시킬 수 있으며, 물품 구매를 하는 기업은 보세창고 혹은 별도 세관 구역에서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것과 같이 수입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③ EPE 기업이 아닌 기업에서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해외 상인의 지시에 따라 거래 활동을 하는 경우, EPE 기업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다.



- ④ 만일 해외 상인과의 물품 거래 후 베트남에서 해외 상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을 하는 경우에 ①~③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 국내 거래처럼 이행한다. 이 때 수출제조 형태로 물품을 수급하는 기업은 면세 받은 원재료에 대한 용도 변경 및 세금 납부 이후에 공급을 해야 한다.

## 2. 유예 기간 제안

내국수출입 활동의 편의와 기업들이 생산 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해, 재무부는 C항에 해당하는 거래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가 없는 기업, 개인 간에 거래되는 물품으로써 해외 상인의 지시로 베트남의 다른 기업에게 전달되는 물품의 경우)에 대해 개정 시행령의 발효일로부터 최대 1년이 넘지 않는 전환 기간동안 내국 수출입 절차 이행이 가능하게끔 제안한다. 단 이 때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해외 상인은 대외무역관리법 제 3조 제 5항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 공문 상 시행령 개정 시행을 2023년 4분기로 제안하고 있어, 기존에 내국 수출입 거래를 활용하였던 기업들은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개정 초안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언급하고 있으나 유예 기간 동안 C항의 내국 수출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상인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어야 한다는 대외무역관리법 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부분 및 현재 내국 수출입과 관련한 각 지역 세관의 해석 및 승인 여부가 상이한 점 등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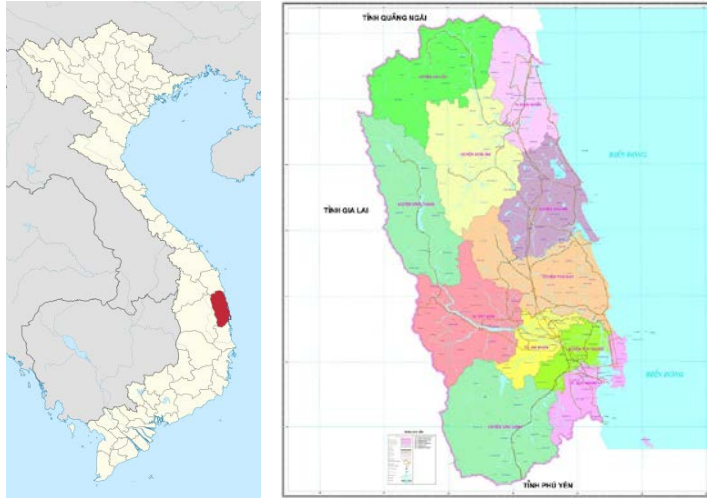
## 베트남 남부 유망 투자지 - 빈딘성

### □ 빈딘(Binh Dinh)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6,071km<sup>2</sup> ▪ 인구: 1,500,000명</li> <li>▪ 도시거주 비율: 40.3%</li> </ul>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딘(Binh Dinh)성은 라오스 남부, 태국 북동부, 베트남 중부고원지방의 동해로 가는 가장 가까운 관문임</li> <li>▪ 대도시 및 중심지까지의 거리: 하노이시: 1,065km, 호치민시: 650km, 다낭시: 322km, 자라이(Gia Lai)성 프레이꾸(Pleiku)시: 165km</li> </ul>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1번 국도, 19번 국도</li> <li>▪ 철도: 북-남철도</li> <li>▪ 항만: 꾸이년(Quy Nhon) 항구, 티나이(Thi Nai) 항구, Tan Cang Mien Trung 항구</li> <li>▪ 항공: 푸깟(Phu Cat) 공항</li> </ul>
GRDP 성장률 / 1인당 GDP('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대비 GDP 성장률: 8.57%</li> <li>▪ 성 1인당 GDP: US2,925달러/년</li> </ul>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수출액: US 15.5억 달러 / 총 수입액: US 4.69억 달러</li> <li>▪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8.55%), 서비스업(12.61%), 농수산업(3.26%)</li> </ul>
산업구조('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건설업 30.05%, 서비스업 38.16%, 농수산업: 27.38%</li> </ul>
노무여건('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연령 인구 비율: 60%</li> <li>▪ 노동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60.09%</li> <li>▪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56%</li> </ul>
최저임금('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이년(Quy Nhon)시: VND3,640,000= US158 달러(3급지)</li> <li>▪ 타 지역: VND3,250,000= US141 달러(4급지)</li> </ul>
외국인투자 ('22.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딘성의 총 외국인투자는 87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1.4억 달러</li> <li>▪ (한국) 빈딘성에의 총 한국투자는 4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0.97억 달러, 빈딘성에 투자한 21개의 국가 중 투자 건수 기준으로 8위, 투자액 기준으로 8위 규모</li> </ul>



## □ 투자환경



빈딘성 위치 및 지도

### 0 교통 시스템

(도로) 1A 국도, 1D 국도, 데에응우옌(Tay Nguyen) 지역과 연결되는 19번 국도가 있음. 지난 수년 동안 빈딘성은 통합적 교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항상 자원을 우선시하여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3개의 전략적 도로가 개설되었음:

- 6차선의 신규 19번 국도 구간[강(Ganh) 다리에서 꾸이년 항구까지]
- 푸깃(Phu Cat) 공항과 년호이(Nhon Hoi) 경제구역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
- 6차선의 Becamex- VSIP Binh Dinh 공단과 꾸이년시를 연결하는 빈딘성의 서쪽 도로

*\*데에응우옌(Tay Nguyen) 지역은 건툼(Kon Tum)성, 잘라이(Gia Lai)성, 닥락(Dak Lak)성, 닥농(Dak Nong)성과 램동(Lam Dong)성을 합쳐 부르는 서부고원 지역에 대한 명칭임.*

(항만) 꾸이년(Quy Nhon) 항구는 꾸이년 베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엉마이(Phuong Mai) 반도에 의해 보호되어 있어 연중 선박 정박 및 선적에 매우 편리한 국립 일반 항구이자 남중부 항구 그룹의 중심지임. 마닐라, 싱가포르, 홍콩, 가오슝(대만), 방콕(태국), 도쿄(일본),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 등 국제 항구를 연결하는 해로가 10개가 넘음. 꾸이년(Quy Nhon) 항구는 30,000 - 50,000 DWT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음. 년호이(Nhon Hoi) 항구는 서비스 및 산업 시설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부두를 계획하고 있으며, 최대 10,000 - 50,000 DWT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음.

(철도) 디에우찌(Dieu Tri)역은 북남 철도의 큰 역으로 1A국도에서 약 600m 떨어져 있고 19번 국도와 인접해 있어 승객과 화물 수송에 매우 편리함. 라오스 남부와 캄보디아 북동부 및 데에응우옌(Tay Nguyen) 지역의 환승역임.

(항공) 푸깃(Phu Cat)공항은 건설 규모, 빈도, 항공편 범위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및 확장되었음. 현재까지 하루 30편 이상의 국내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매주 한국으로 향하는 국제선이 취항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일본 등으로 국제선 노선을 개설하기 위한 마련하고 있음.





## 0 관광 및 천연자원

(관광) 지난 몇 년 동안 빈딘성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중 하나임. 빈딘성은 숲과 바다, 베트남 중부의 전형적인 흔적을 지닌 건축 작품 사이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방문객에게 감동과 매혹을 선사함. 빈딘성의 전형적인 아름다운 관광지로는 기거(Ky Co)섬, 에오저(Eo Gio) 해협, 데기(De Gi) 해변 마을, 황하우(Hoang Hau) 해변이 있음.



기거(Ky Co)섬



에오저(Eo Gio) 해협



데기(De Gi) 해변 마을



황하우(Hoang Hau) 해변

(광물자원) 형석, 유리모래, 석영, 흑연, 고령토, 이탄, 포석, 일반적인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돌, 건축 모래, 벽돌점토, 라테라이트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함.



## 0 산업단지 개발 통한 경제 개발 동력

현재 빈딘성은 투자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인프라, 특히 총 면적이 1,956.5헥타르에 달하는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투자, 업그레이드 및 완성했음.

### ❖ 년호이(Nhon Hoi) 경제구역

베트남 총리가 승인한 일반 계획에 따르면 년호이(Nhon Hoi) 경제구역은 총 12,308헥타르의 면적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8개의 특정 기능 구획이 있음:

- (1) 탄타잉(Tan Thanh) 도시-관광 지역 - 1,164ha
- (2) 캣띠엔(Cat Tien) 관문 도시 지역 - 1,606ha
- (3) 년호이(Nhon Hoi) 도시-관광 지역 - 2,199ha
- (4) 년호이(Nhon Hoi) 도시-산업 단지 - 3,521ha
- (5) 프엉마이(Phuong Mai) 도시-관광지역 - 1,512ha
- (6) 티나이(Thi Nai) 연못 - 1,998 ha
- (7) Becamex 도시-산업 단지 A - 1,425ha
- (8) Becamex 도시-산업 단지 B - 883ha

현재 나머지 주거 및 도시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 면적은 약 2,500ha 이상, 나머지 상업 및 서비스 토지는 약 600ha, 나머지 산업 토지는 약 1,300ha 이상임. 빈딘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는 투자자들을 환영하고 있음.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티나이(Thi Nai) 연못 생태관광 지역, 년호이(Nhon Hoi) 일반항, 서비스-상업 사업, 호텔, 컨퍼런스 센터, 고품질 종합병원, 하이테크 산업 등이 있음.

### ❖ 산업단지

빈딘성의 계획에 따르면 성 전체에는 현재 07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총 면적은 2,800헥타르 이상임. 7개 산업단지는 푸따이(Phu Tai) 공단(340ha), 롱미(Long My) 공단(118ha), 년호아(Nhon Hoa) 공단(282ha), 호아호이(Hoa Hoi) 공단(266ha), 년호이(Nhon Hoi) 공단(구역A - 394ha, B구역 - 452ha) 및 Becamex - VSIP Binh Dinh 공단(1,000ha)임. 또한, 3개의 공단 인프라 투자 및 건설 프로젝트 [캣칭(Cat Trinh) 공단(368ha), 빈응이(Binh Nghi) 공단(207ha), 롱미 2(Long My 2)(109ha)]는 투자주장에 대한 국무총리의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완료하는 단계에 있음.



## 0 인센티브 지원 정책

- (법인 소득세 및 토지세) \* 아래 법적 근거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투자지역/분야	법인세	토지/수면 임대료
<p>▪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떼이선(Tay Son) 현, 푸깃(Phu Cat) 현, 반까잉(Van Canh) 현, 빈타잉(Vinh Thanh) 현, 안라오(An Lao) 현, 호아이안(Hoai An) 현, 푸미(Phu My) 현</p> <p>▪ 제218/2013/ND-CP 제15.1조 (b), (c), (d), (dd)에 명시된 분야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15년간 세율 10%</li> <li>•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li> </ul>	<p>기본 건설 기간 면제(최대 3년간)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전체 기간 면제</li> <li>•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li> <li>• 투자우대 미등록분야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li> </ul>
<p>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튀프억(Tuy Phuoc) 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세율 20%</li> <li>• 첫 10년간 세율 17%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li> <li>•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li> </ul>	<p>기본 건설 기간 면제(최대 3년간),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li> <li>•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li> <li>• 투자우대 미등록분야 프로젝트: 7년간 계속 면제</li> </ul>
<p>기타 지역: 안년(An Nhon) 군, 호아이년(Hoai Nhon) 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세율 20%</li> <li>•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li> </ul>	<p>기본 건설 기간 면제(최대 3년간),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li> <li>•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3년간 계속 면제</li> </ul>
<p>년호이(Nhon Hoi) 경제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15년간 세율 10%</li> <li>•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li> <li>• 특히 투자 유치가 필요한 첨단 기술이나 신기술을 갖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우대 세율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세율 10% 적용 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p>기본 건설 기간 면제(최대 3년간),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전체 기간 면제</li> <li>•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li> <li>• 투자우대 미등록분야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li> </ul>

-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D-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 **외국인 투자현황**

0 **외국인 투자(FDI)**

2022년 12월 말까지 빈딘성 대상 총 외국인 투자는 87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1.4억 달러가 투자 등록되어 있음

0 **빈딘성 내 10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달러)
1	Vietnamese American Hotel And Resort JSC	캣하이(Cat Hai) 럭셔리 리조트	미국	256.8백만
2	QNY Energy Co., Ltd	태양광 발전소	한국	70백만
3	Minhyang Biochemistry Viet Nam Co., Ltd	밍즈엉(Minh Duong) 카사바 전분 가공 공장	중국	68백만
4	Maia Quy Nhon Resort JSC	MAIA Quy Nhon Beach Resort	영국령 버진 제도	65백만
5	Delta Galil Vietnam Co., Ltd	섬유-염색-의류 공장	이스라엘	54.4백만
6	KURZ Vietnam Co., Ltd	생산공장	독일	40백만
7	C.P Vietnam Corporation	전자 부품 제조, 공장 임대	태국	36백만
8	Hong Yeung Vietnam Co., Ltd	년호이(Nhon Hoi) 공단(B구역) 인프라 건설 및 사업	홍콩	34백만
9	Pegasus Investment And Consultancy JSC	Pegasus 생태관광단지	싱가포르	32.6백만
10	Phucson Cement Co., Ltd	시멘트 분쇄 및 이송 스테이션	싱가포르	30백만

0 **한국계투자**

2022년 12월 말까지 한국 투자는 4개의 프로젝트가 있으며, 0.97억 달러가 투자 등록되어 있으며, 빈딘성에 투자한 21개의 국가 중 투자 건수 기준으로 8위, 투자액 기준으로 8위를 차지함

프로젝트명	내용	위치	투자액(IUS달러)
QNY Energy Co., Ltd	태양광 발전소	년호이(Nhon Hoi) 경제구역	70백만
CJ Vina Agri Co., Ltd - Binh Dinh	동물 사료 생산	년호아(Nhon Hoa) 공단	24.4백만
CGV Vietnam Co., Ltd - Quy Nhon	영화관	붕주아(Vung Chua) 녹색 도시 지역	1.73백만
Seplusplus Binh Dinh Co., Ltd	수출용 의류 공장	빈딘 산업 클러스터	1.5백만



□ 공단 현황

0 주요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	면적(ha)	주요 정보	투자개발사
1	년호이 (Nhon Hoi) - A 구역	2006	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율: 57.7%</li> <li>임대료: 45~50USD/m2/50년</li> <li>투자유치분야: 다분야 (전자, 농림수산물 가공, 섬유-수출용 신발 생산, 플라스틱-세라믹-도자가-유리 생산, 고급 목재 제품 생산 등)</li> </ul>	Saigon – Nhon Hoi Industrial Park Corp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ebsite:<a href="http://www.nhonhoiip.com.vn">http://www.nhonhoiip.com.vn</a></li> <li>Email:<a href="mailto:kcnnhonhoia@gmail.com">kcnnhonhoia@gmail.com</a></li> </ul>
2	년호이 (Nhon Hoi) - B 구역	2007	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율: 7%</li> <li>임대료: 35~40USD/m2/50년</li> <li>투자유치분야: 다분야 (건축자재, 기계, 화학, 제조업, 자동차 부품 생산, 경공업, 소비재, 수출용 의류, 전기-전자, 농림수산물 가공, 포장 등)</li> </ul>	Hong Yeung Viet N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ebsite:<a href="http://www.hongyeung.com.vn">http://www.hongyeung.com.vn</a></li> <li>Email:<a href="mailto:info@hongyeung.com.vn">info@hongyeung.com.vn</a></li> </ul>
	Becamex – VSIP Binh Dinh	202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율: 7%</li> <li>임대료: 60USD/m2/50년</li> <li>투자유치분야: 다분야</li> </ul>	Becamex Binh Din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ebsite:<a href="https://becamexbinhdinh.com.vn">https://becamexbinhdinh.com.vn</a></li> <li>Email:<a href="mailto:info@becamexbinhdinh.com.vn">info@becamexbinhdinh.com.vn</a></li> </ul>
	년호아 (Nhon Hoa)	2006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율: 70%</li> <li>임대료: 50~56USD/m2/50년</li> <li>투자유치분야: 전기/전자 장비 제조업, 농림산물 가공, 기계, 석재 가공, 건축자재 등</li> </ul>	Nhon Hoa Industrial Zone Infrastructure Inve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ebsite:<a href="http://nhonhoa-industrialpark.com">http://nhonhoa-industrialpark.com</a></li> <li>Email:<a href="mailto:kcnnhonhoa@gmail.com">kcnnhonhoa@gmail.com</a></li> </ul>
	호아호이 (Hoa Hoi)	2006	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율: 7%</li> <li>임대료: 45USD/m2/50년</li> <li>투자유치분야: 기계, 야금, 전자 및 정보 기술, 농림산물 가공, 타일, 단열 도자기, 산업용 페인트 생산, 석재 가공, 콘크리트 생산 등</li> </ul>	Phuc Loc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ebsite:<a href="http://phuclocgroup.vn">http://phuclocgroup.vn</a></li> <li>Email:<a href="mailto:tracy.nguyenpt@gmail.com">tracy.nguyenpt@gmail.com</a></li> </ul>



## □ 투자 유망분야

- 농림수산업: 가축 및 가공류 가공, 해산물 가공, 임산물가공, 새우 개발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농업 단지, 참치 가공 및 통조림 등
- 산업: 빈딘성 북부의 산업단지 및 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초대하고 있음
- 항만 서비스 및 물류: 화이년(Hoai Nhon) 군과 푸미(Phu My)현의 ICD 항구, 물류 센터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도시 경제: 년호이(Nhon Hoi) 경제구역의 빌라와 도시 지역, 푸호아(Phu Hoa) 호수 도시 - 관광 - 문화 - 스포츠 지역 등 해안 도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초대하고 있음

## □ 빈딘성 투자 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빈딘성 기획투자청	Mr. Le Hoang Nghi (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l: +84-256-381 8888</li> <li>• Email: <a href="mailto:ipcbinhdinh@gmail.com">ipcbinhdinh@gmail.com</a></li> <li>• Website: <a href="http://www.binhdinhinvest.gov.vn">http://www.binhdinhinvest.gov.vn</a></li> </ul>
빈딘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Mr. Dang Vinh Son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l: +84-256 374 7721</li> <li>• Email: <a href="mailto:kktbinhdinh@binhdinh.gov.vn">kktbinhdinh@binhdinh.gov.vn</a></li> <li>• Website: <a href="https://kkt.binhdinh.gov.vn">https://kkt.binhdinh.gov.vn</a></li> </ul>

<끝>

## 2023 아세안 주요 3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 자료에서는 아세안 국가 중 유수의 글로벌 조사기관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3개국을 다루고 있다. 기존에 각 국가별 자료들은 있었으나, 아세안 중 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주요 3개국의 투자환경 비교 자료를 모아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발간하는 것이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가별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배치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순으로 작성하였고, 크게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였다. 기업환경에는 입지여건, 노무관리, 조세여건, 지적재산권보호, 물류환경, 법인설립 및 부동산 취득관련 내용을 관련 법률 및 통계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은 주거환경, 교통, 외국인교육시설, 통신, 투자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가 기업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 0 목차

#### 1. 베트남

- 1.1 기업환경
- 1.2 생활환경
- 1.3 투자유치제도

#### 2. 인도네시아

- 2.1 기업환경
- 2.2 생활환경
- 2.3 투자유치제도

#### 3. 태국

- 3.1 기업환경
- 3.2 생활환경
- 3.3 투자유치제도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 내 보고서\(심층\)에서 첨부파일 확인가능](#)  
[클릭시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3. 8. 20 기준 누계		2023. 1. 1 ~ 8.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756	83,059.06	308	459.19	2,457.98
싱가포르	3,343	72,694.96	235	2,445.02	3,833.84
일본	5,168	71,026.83	192	555.37	2,582.98
대만	3,031	37,625.29	126	700.39	1,207.17
홍콩	2,331	30,967.82	174	1,150.02	1,515.54
중국	3,949	25,807.78	399	1,879.85	2,686.12
버진아일랜드(영)	904	22,701.23	17	40.04	48.27
네덜란드	430	14,163.66	16	237.03	734.97
태국	710	13,589.58	30	345.93	403.64
말레이시아	727	13,088.15	28	3.21	20.38
미국	1,286	11,787.96	72	74.92	489.98
기타	6,449	34,042.92	327	981.25	1,506.18
<b>전체 합계</b>	<b>38,084</b>	<b>430,555.24</b>	<b>1,924</b>	<b>8,872.22</b>	<b>17,487.15(7.4)</b>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3. 8. 20 기준 누계		2023. 1. 1 ~ 8.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6,456	272,224.30	602	7,548.05	12,298.63
2	부동산 경영	1,111	67,204.55	41	472.37	1,760.70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2	38,411.52	8	98.21	127.9
4	호텔, 외식서비스	974	12,927.56	44	28.19	64.25
5	건설	1,803	10,882.92	23	66.95	151.71
6	도소매, 유지보수	6,682	10,742.72	557	233.83	667.09
7	물류운수	1,067	6,294.56	82	165.43	249.15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395	5,384.47	271	111.98	799.95
9	정보통신	2,871	5,099.16	188	29.85	328.24
10	채광	108	4,894.57	0	0	0.2
11	교육, 양성	669	4,601.54	45	10.51	26.39
12	농, 임, 수산	531	3,856.27	11	23.04	24.22
13	예술 오락	142	3,165.07	3	6.47	9.67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4	3,102.47	1	60	60.43
15	의료와 사회복지	154	1,752.23	1	0.6	4.9
16	행정, 지원 서비스	596	1,056.43	35	15.11	35.97
17	금융, 은행, 보험	92	920.92	7	0.76	1,535.07
18	기타 서비스	150	724.4	5	0.89	1.78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b>합계</b>	<b>38,084</b>	<b>453,256.73</b>	<b>1,924</b>	<b>8,872.24</b>	<b>16,611.18(7.4)</b>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20	2021	2022	2023.8(누계)
수 출	2,826.5	3,363.1	3,713	2,281.6(-9.8)
수 입	2,627	3,322.3	3,589	2,082.7(-15.9)
무역수지	199.5	40.8	124	198.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8(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183	57,537	57,994	33,884(-15.5)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44,576	50,828	55,536	35,938(-2.1)
기계/플랜트 및 부품	27,193	38,344	45,751	26,841(-10.7)
섬유/직물제품	29,809	32,753	37,566	22,512(-14.4)
신발류	16,791	17,751	23,895	13,358(-18.4)
원목 및 목제품	12,371	14,809	16,011	8,485(-24.1)
철강제품	5,258	11,795	7,993	2,718(-15.9)
수송수단 및 부품	9,090	10,616	11,988	9,059(15.6)
수산물	8,412	8,886	10,923	5,789(-24.0)
원사(Yarn)	3,736	5,612	4,713	2,878(-16.6)
기 타	74,235	87,379	98,934	66,654
합 계	282,654	336,310	371,304	228,116(-9.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8(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63,971	75,440	81,884	54,225(-5.3)
기계/플랜트 및 부품	37,251	46,296	45,192	26,769(-12.7)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645	21,434	21,126	5,097(-63.2)
의류(원단)	11,875	14,324	14,706	8,478(-17.8)
플라스틱 원료	8,397	11,685	12,387	6,326(-28.9)
각종 철강	8,066	11,523	11,920	6,538(-26.2)
기타 비금속	6,052	8,611	9,253	4,935(-25.9)
플라스틱 제품	7,274	7,959	8,119	4,857(-13.2)
화학제품	5,741	7,627	9,144	4,947(-18.1)
화학물질	5,016	7,735	8,747	5,028(-24.4)
기 타	92,412	119,600	136,423	81,071
합 계	262,700	332,234	358,901	208,271(-15.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8(누계)
1	미국	61,347	77,077	96,293	109,388	62,118
2	중국	41,414	48,905	56,009	57,702	36,615
3	한국	19,720	19,107	21,945	24,293	15,527
4	일본	20,413	19,284	20,128	24,232	15,249
5	홍콩	7,156	10,437	11,996	10,936	5,828
6	네덜란드	6,881	6,999	7,686	10,430	6,527
7	독일	6,555	6,644	7,286	8,968	4,976
8	인도	6,674	5,235	6,259	7,961	5,432
9	태국	5,272	4,917	6,161	7,476	4,881
10	영국	5,758	4,955	5,765	6,065	4,092
	기타	82,999	79,094	96,782	103,853	66,921
	합계	264,189	282,654	336,310	371,304	228,166(-9.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8(누계)
1	중국	75,452	84,187	109,874	117,866	68,837
2	한국	46,935	46,895	56,155	62,088	33,362
3	대만	15,173	16,701	20,772	22,631	12,093
4	일본	19,526	20,341	22,648	23,373	13,911
5	미국	14,365	13,713	15,270	14,470	9,150
6	태국	11,656	10,968	12,564	14,092	7,701
7	오스트레일리아	4,456	4,677	7,946	10,144	5,780
8	말레이시아	7,291	6,575	8,148	9,124	4,994
9	인도네시아	5,703	5,382	7,587	9,641	5,701
10	인도	4,538	4,435	6,950	7,086	4,078
	기타	47,975	48,826	64,320	68,386	42,664
	합계	253,070	262,700	332,234	358,901	178,936(-15.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8(누계)
수출	48,178(-0.9)	48,510(0.7)	56,729(16.9)	60,972(7.5)	34,176(-18.3)
수입	21,071(7.3)	20,579(-2.3)	23,965(16.5)	26,726(11.5)	17,315(-6.5)
무역수지	27,107	27,931	32,763	34,246	16,861

자료원: KITA

###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9	2020	2021	2022	2023.8(누계)
반도체	10,730(-1.9)	11,501(7.2)	14,026(22)	16,240(15.8)	7,670(-29.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970(-10.5)	9,552(19.9)	12,050(26.1)	12,527(4.0)	7,430(-8.8)
석유제품	2,196(11.2)	1,196(-45.5)	1,157(-3.2)	3,733(222.3)	2,516(-7.2)
무선통신기기	2,932(11.4)	3,460(18)	3,315(-4.2)	2,358(-29.2)	1,412(-12.7)
합성수지	1,624(-2.1)	1,615(-0.6)	2,415(49.5)	2,581(6.9)	1,295(-33.2)
기구 부품	2,230(-4.4)	2,241(0.5)	2,405(7.3)	2,194(-8.8)	1,237(-19.1)
플라스틱 제품	1,210(0.4)	1,115(-7.8)	1,174(5.3)	1,067(-9.2)	670(-10.2)
철강판	1,157(10.4)	1,052(-9.1)	1,267(20.4)	1,069(-15.6)	586(-31.6)
기타기계류	842(-3.9)	686(-18.6)	717(4.5)	815(13.6)	585(1.0)
계측제어분석기	783(12.4)	669(-14.5)	957(43.0)	793(-17.1)	531(-9.3)
기타	16,678	15,437	17,039	17,242	10,245
합계	48,178(-0.9)	48,511(0.7)	56,729(16.9)	60,972(7.5)	34,176(-18.3)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9	2020	2021	2022	2023.8(누계)
무선통신기기	5,691(17.6)	4,980(-12.5)	5,579(12)	5,986(7.3)	3,159(-30.9)
의류	3,646(2.1)	3,145(-13.7)	3,393(7.9)	3,840(13.2)	2,352(-2.3)
컴퓨터	679(25.9)	1,270(87.1)	1,659(30.6)	1,948(19.1)	1,477(8.8)
반도체	471(19.1)	561(18.9)	750(33.8)	787(5.0)	1,129(106.2)
산업용 전기기기	479(14.8)	574(20)	725(26.2)	970(33.8)	920(46.1)
신변잡화	1,053(7.4)	1,029(-2.2)	984(-4.4)	1,250(27.2)	113(-2.6)
목재류	657(-17.1)	632(-3.9)	755(19.5)	942(24.8)	509(-20.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197(5.2)	1,027(-14.2)	876(-14.7)	783(-10.5)	470(-12.7)
기구부품	512(15.1)	481(-5.9)	624(29.6)	654(4.8)	364(-18.4)
영상기기	350(6.3)	391(11.8)	426(8.9)	441(3.6)	272(-9.2)
기타	6,331	6,474	8,161	9,103	6,550
합계	21,072(7.3)	20,579(-2.3)	23,966(16.5)	26,726(11.5)	17,315(-6.5)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2~2023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2년(연간)	%	3.6	7.6	8.7	5.3	8	
	2023년 1Q	%	0.4	6.4	5.6	5	3.3	
	2023년 2Q	%	0.7	6.3*	N/A	N/A	4.1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124.9	N/A	126.2	N/A	7.80%
		2023년 6월	-	122.4	10.1	127.9	149.3	2.8
		2023년 7월	-	121.4	10.3	125.6	N/A	3.7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2년(연간)	-	N/A	52.6	N/A	N/A	N/A
		2023년 6월	-	49.7	50.9	47.7	52.5	46.2
		2023년 7월	-	49.8	51.9	47.8	53.3	48.7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2년(연간)	-	108.4	N/A	100.5	119.9	N/A
		2023년 6월	-	113.6	N/A	90.8	127.1	N/A
		2023년 7월	-	113.3	N/A	-	123.5	N/A
	소매판매	2022년(연간)	-	100.3	4.50%	161.5	6.20%	19.80%
		2023년 6월	-	98.1	4.4%	169.1	7.9%	6.5
		2023년 7월	-	100.5	3.9%	170.2	1.6	7.1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6.1	5.8	3.3	4.2	3.2
		2023년 6월	%	4.5	5.4	2.4	3.52	2.0
		2023년 7월	%	4.1	4.7	2.0	3.08	2.1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2년(연간)	%	225	N/A	9	3.87	△11.0(누계)
		2023년 6월	%	N/A	N/A	14.0	4.63	△4.3(누계)
		2023년 7월	%	-	N/A	-	-	4.5(누계)
고용	실업률	2022년(연간)	%	2.1	5.4	3.8	N/A	2.3
		2023년 1Q	%	1.8	4.8	3.5	5.5	2.3
		2023년 2Q	%	1.9*	4.4*	3.5*	N/A	2.3
무역	수출증가율	2022년(연간)	%	15.6	14.5	25	26.1	7.1
		2023년 6월	%	△17.2	0.9	△14.1	△21.2	△11.4
		2023년 7월	%	△18.4	△1.2	△13.1	△18.0	△3.5
	수입증가율	2022년(연간)	%	20.1	17.3	31.3	21	8.6
		2023년 6월	%	△21.4	△15.0	△18.9	△18.4	△16.9
		2023년 7월	%	△23.5	15.3	△15.9	△8.3	△9.9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 2023 하노이 K-소비재 BOX 사업

지원기간	2023년 10~12월
사업내용	주요 유통망 벤더(B2B) & 소비자(B2C) 대상 샘플 BOX 제작 후 발송 → 샘플 테스트 지원, 피드백 수령
지원대상	무역관 마케팅사업 기참가기업 중 희망 기업, 베트남 진출 유망 품목 취급 내수기업 등 25개사
지원사항	- 샘플 베트남 발송비용 : 기업당 5kg 이내(초과물량 기업 자부담 필요) - 현지 바이어·소비자의 샘플 테스트 피드백 제공, 후속상담 지원 등 F/U
참가요건	- 무료 샘플 제공가능 기업(중요) : 제공 샘플 수량은 기업에서 결정 - 베트남 진출 희망 소비재(화장품, 식품, 생활잡화 등) 기업 - 영문 홈페이지 또는 영문 제품 소개자료 보유기업
우대사항	- 내수기업 또는 수출초보기업 * '22년 1-12월 및 '23년 1-8월 수출실적이 \$0~\$10만 미만인 기업 - 베트남어 제품 소개자료 보유기업 - '23년도 내 KOTRA 하노이무역관 마케팅사업 기참가기업
신청방법	1) KOTRA 기업회원 가입 2) 신청서류 일체 e-mail 제출 *세부사항 확인 : 상세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코트라 무역투자 24 (kotra.or.kr) *신청기한 : ~ 2023년 10월 6일(금) 18:00 (한국시간 기준) 까지

## 베트남 녹색산업 시장개척단

일 시	'23.10.31(화) ~11.2(목)
장 소	JW메리엇트 하노이 Grand Ballroom
참가기관	환경부(단장 : 환경부 장관), 한국환경산업협회, 녹색산업체 20개사
주요내용	- 한베 녹색산업 기술설명회 : 국내 환경산업 우수기술 소개, 베트남 정부 정책 및 발주처 프로젝트 동향 안내 등 - 한베 비즈니스 상담회 : 국내기업-베트남기업 1:1 비즈니스 상담회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4 24-3946-0511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

